

오영훈 1·2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양 측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 “선거에 끼친 영향 등 종합할때 원심 판결 적절” 오 지사 “대법원 상고할 것”... 이르면 7-8월 최종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지사는 당선 무효 위기에 한걸음 더 벗어났지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2회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본부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원심이 파기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상장기업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고 위법성을 인식했



오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지사가 2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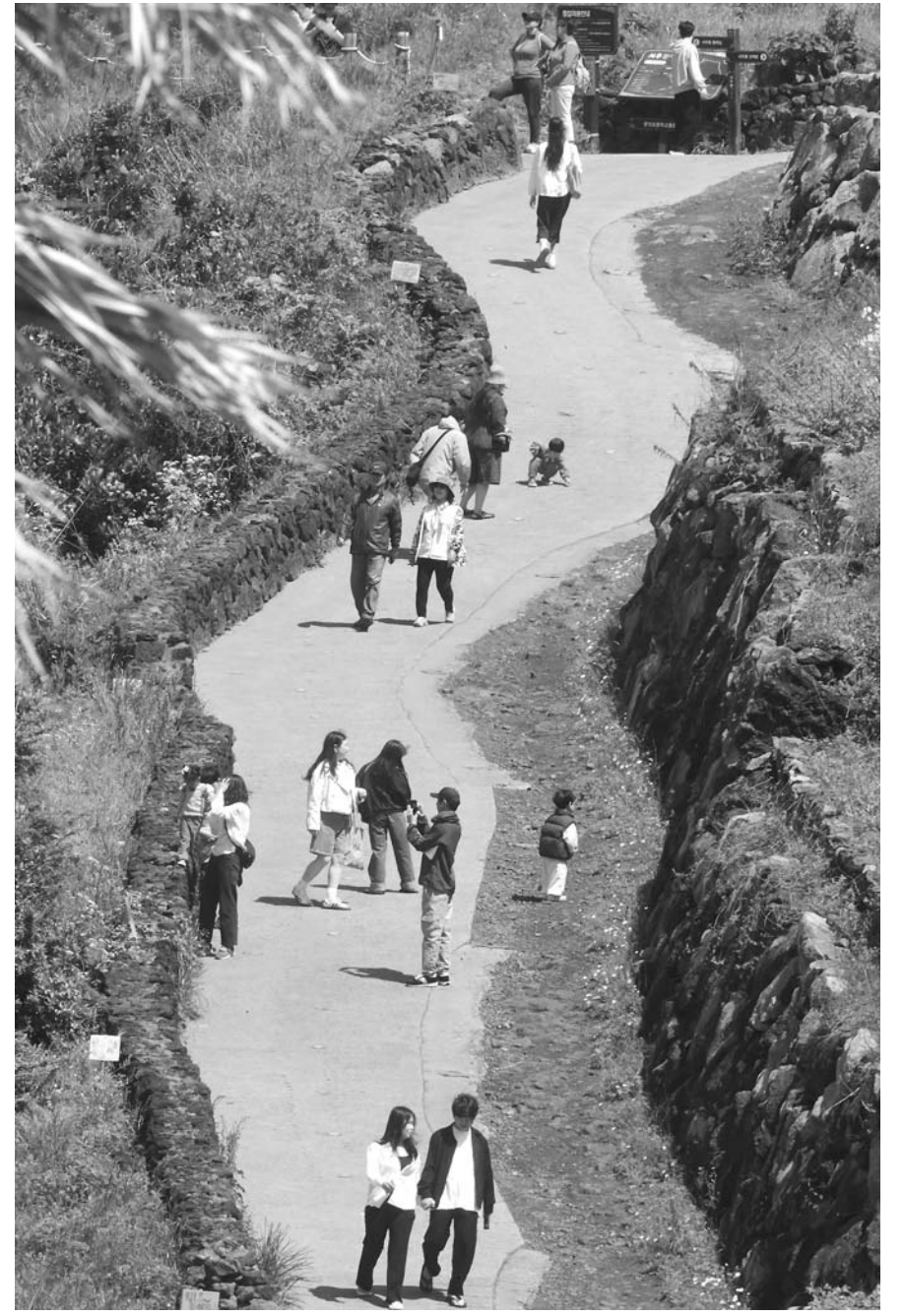
라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는 협약식 당일이 돼서야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집착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없고, 협약식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여 오 지사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개입한 증거는 없다”며 A씨와 B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 당시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정 본부장과 김특보만 유죄로 인정됐다.

오 지사는 이날 “일부 유죄에 대해선 법리적 설명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르면 오는 7-8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루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상민기자



합덕서우봉 산책길 따라 24일 제주시 합덕서우봉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걸으며 완만한 제주의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농산물 절도 예방 CCTV 더 늘린다

서귀포시 올해 25대 설치 확정... “추경 통해 추가”

서귀포시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대수를 더 늘린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저장형 CCTV 설치 사업은 2021년부터 농협, 경찰서와 협업한 ‘농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귀포경찰서는 지역 간담회와 범죄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해 왔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농가의 동의를 받아 농지 출입구나 농산물 창고 등에 설치한 저장형 CCTV는 2021년 65대, 2022년 59대, 2023년 47대 등 총 171대로 집계됐다. 올해

는 2000만원을 투입해 약 25대 설치가 확정됐는데 매년 50대 안팎을 지원해온 만큼 추경 등을 통해 추가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감굴 농가 등에 저장형 CCTV가 설치되면서 절도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경찰 자료에 의하면 실제 남원읍 일대에서 2018년 10월~2020년 9월 총 233건이던 농산물 절도 건수가 2020년 10월~2022년 9월에는 193건으로 17.2% 줄었다.

서귀포시는 “농가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경찰,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CCTV 설치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부하직원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부하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등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니던 공기업에서 해고됐다. 이상민기자

중학교 교직원 여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 추가 확인

속보=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16일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6일 피해 교사에게 발각되며 들쭉날쭉했다. 경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처음 신고한 교사 말고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기자

“뺨길 끊긴 추자도 의료공백 막아라”

도, 어업지도선 긴급 투입해 의료진 수송 지원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추자도 주민들의 의료공백 발생에 대비해 관공선이 긴급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제주~추자도를 잇는 퀸스타2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25일부터 어업지도선을 긴급 투입해 제주의료원의 추자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추자도 주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의료원은 2022년 9월부터 추자도를 찾아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다.

제주도는 신규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기 전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어업지도선으로 제주의

료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의 의료인력을 추자도로 수송할 계획이다. 또 약사 등 무료 진료사업 관계자의 추자도 입도가 필요할 경우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의료원은 추자도 주민 무료 진료사업을 통해 추자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각 리별로 선정한 예약인원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수액 처치 ▷무릎관절 주사 처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자도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안정될 때까지 진료인원 수송을 적극 지원해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 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농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다인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다인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인파고정판 + 인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